

조선닷컴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당재터널은 인간을 거부했고 우린 미친듯이 기적을 뚫었다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

입력 : 2015.03.20 03:00 | 수정 : 2015.03.20 07:11

[5] 경부고속도로와 심완식

- 감독관은 양심적인 미혼장교 뽑아라

"싸고 튼튼하게 그렇지만 빨리 만들라" 시공사·감독·노무자 모두가 '미친놈'

과로·사고에 현장엔 怪談까지 난무... 그렇게 대한민국 대동맥이 뚫렸다

- 순직 77 명중 당재터널서만 11 명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중 당재만 남아 조강 시멘트로 24 시간 악착같이 공사

개통식날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에 난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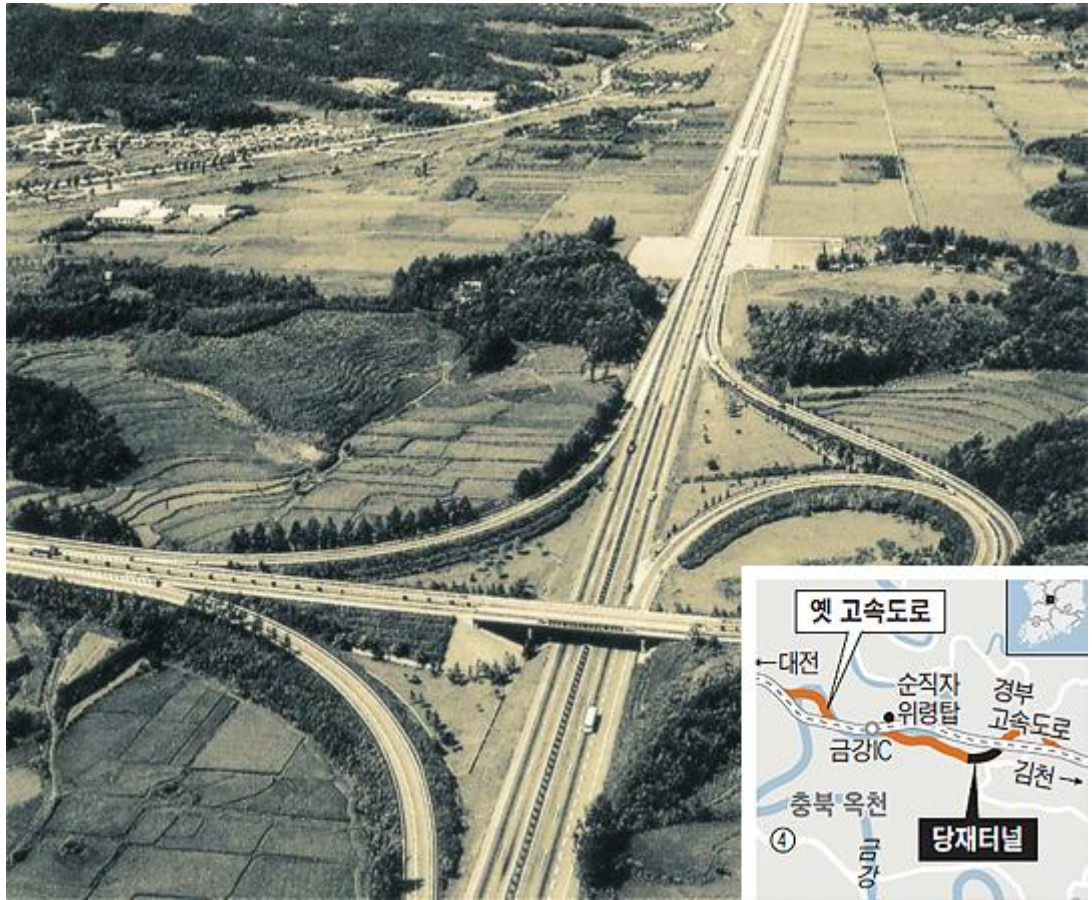
뽀뽀하게 각을 세운 군복을 입고서 심완식은 울어버렸다. 체구는 다부지고 하관이 억센 전형적 무사(武士)였지만 대통령 뒤에 서 있던 건설부 장관 이한림이 "이 자가 바로 당재터널의 심완식"이라고 치켜세우는 데에는 참을 도리가 없었다. "임자가 심완식이야?" 하며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 박정희 앞에서 서른두 살 먹은 육군 대위는 억센 턱을 꼭 다물며 통곡에 가깝게 눈물을 흘렸다. 1970 년 7 월 7 일 대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서독 방문 3 년 만에 기공식

1964 년 12 월 6 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비행기에 올랐다. 대통령 전용기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지라 비행기는 서독 정부가 내준 루프트한자 649 호였다. 이륙 전 그가 말했다. "종전(終戰) 후 폐허 위에서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살살이 시찰할 것이다." 독일 도착 다음 날 박정희는 본에서 쾰른까지 아우토반으로 왕복했다. 왕복 40 km였다. 주행 시속은 160 km. 귀국 후 대통령은 직접 도로 그림도 그리고 지프를 타고 암행도 다니며 귀신에 쏜 듯 고속도로에 몰입했다. 서독 방문 만 3 년 2 개월이 지난 1968 년 2 월 1 일 서울 양재동에서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을 열하루 남긴 1 월 21 일 북한의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를 향해 쳐들어왔다. 23 일에는 푸에블로호가 납치됐다. 박정희는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했다. 반대가 심했다. 그 돈이면 공장을

열 개 짓는 게 낫다고도 했다.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동서 간 고속도로를 뚫자"고 했다. 귀신에 썬 박정희는 밀어붙였다. 귀신 이름은 '조국 근대화'라고도 했고 '선진 조국'이라고도 했다.



▲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서울-부산 국도도 제대로 포장도 안 된 그때, 우리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싸게' 건설한 고속도로였다. 사진은 개통 즈음 항공촬영한 고속도로 모습이다. 오른쪽 아래 지도는 당재터널 위치.

기공식 두 달 뒤 와우아파트가 무너졌다. 1년 뒤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경부고속도로가 올라간 건물이었더라면 역시 폭삭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박정희는 "천당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몰라도 서 있는 고속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를 쓴다"고 일축했다. 건설 목표는 서로 모순적이었다. '싸고' '튼튼하고' '빠르게'. 하나를 만족시키면 나머지가 문제였다. 목표끼리 부딪치면 대개 '빠르게'를 우선했다.

"당신은 왜 빠?"

1965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공병대 소속 중위 심완식은 맹호부대 1진으로 월남으로 파병됐다. 1년 반 뒤 귀국해 육군본부 공병감실에 배치된 심완식에게 청와대에 있는 예비역 소장 허필은이 찾아왔다. 1967년 11월이었다. "육사 출신 위관급 중에서 미혼인 사람 열 명쯤 적어 보게."

심완식은 맹호부대 선후배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대위 김인수, 중위 황흥석·이선휘·이정웅.... "당신 이름은 왜 빠냐"는 말에 심완식은 자기 이름도 적어 넣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건설부에서 온 청년들은 석 달 뒤 고속도로 구간 감독관으로 투입됐다. "감독도 미친놈이고, 업자도 미친놈이고,

노무자도 미친놈인" 도로 공사가 개시됐다. 예산은 일본이 같은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비용(1600 억원)의 4 분의 1, 기술은 태국 고속도로를 만들어본 시공사 현대건설, 장비는 공병대 중장비가 전부였다. 엄동설한 2 월이었다.

"또 까불면 세멘 반죽으로..."

수원 구간에 투입된 공병 대위 노부웅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우리의 적(敵)"이라고 선언했다. 적에게는 불도저가 필요 없었다. 대신 다이너마이트로 논둑을 폭파하고 불도저들이 얼음장 들어 올리듯 길을 만들어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전동 롤러 한 대를 수입해 분해한 뒤 역설계(逆設計)로 열두 대를 만들어 경운기 엔진을 붙여서 노면을 다듬었다. 포장이 마르지 않자 심야에 벚짚을 태워 말리기도 했다. 싹이 튼 보리밭을 밀어버리면 "천벌을 받을 놈들, 먹을 걸 갈아엎는다"고 농부들이 들고일어났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

감독관이던 중위 황흥석은 아스팔트가 거울처럼 매끈하지 않으면 불도저 앞에 드러눕곤 했다. 죽으라고 일하던 '미친 시공사' 사장 정주영은 대통령에게 "감독관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불평했다. '미친 근로자'들은 "또 까불면 세멘(시멘트) 반죽으로 묻어버린다"며 황흥석을 물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미친 감독관' 황흥석은 뺨뺨하게 서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 다들 미치지 않으면 진짜 돌아버릴 것같이 일했다.

1



2



3



▲ ①당재터널 공사 장면. ②공사 현장의 심완식(왼쪽)과 정주영(오른쪽에서 둘째). ③순직자위령탑을 참배한 박정희와 육영수(아래쪽 가운데).

그 해 12월 21일, 경수고속도로 31.3 km가 완공됐다. 같은 날 경인고속도로도 개통됐다. 양재 톨게이트에서 분홍색 한복을 입은 부인 육영수와 대통령 박정희가 샴페인을 도로 위에 산주(散酒)했다. 공군기 2대가 연막을 뿜으며 날아갔다. 통행료 150 원 내는 걸 잊어버렸던 대통령 부인 육영수는 며칠 뒤 8500 원짜리 작업 잠바 24 벌로 통행료를 갚았다.

이듬해 9월 경남 지역에 홍수가 났다. 14일부터 16일까지 양산에는 강우량 627 mm의 폭우가 쏟아졌다. 13일 밤 심야 순찰을 하던 연양 공구 감독관 황흥석은 바위틈에서 고양이 눈처럼 빛나는 물체 6개를 목격했다. 사람 눈이었다. 불어난 물에 근로자들이 쉬던 막사가 떠내려간 것이다. 결국 두 명은 찾지 못했다. 그 홍수로 전 구간에 걸쳐 근로자 11명이 실종됐다. 홍수와

교량 붕괴, 터널 붕괴, 과로가 원인이 되어 숨진 사람은 공식적으로 모두 77 명이나 됐다. 그 가운데 열한 명이 당재터널에서 순직했다. 당재터널 감독관은 심완식이었다.

1969 년 여름, 경부고속도로 7 개 공구 가운데 6 개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각 구간은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해 대전을 향해 속속 공사를 완료하고 있었다. 남은 곳은 두 군데, 왜관 구간 낙동대교와 대전 구간 당재터널밖에 없었다.

낙동대교는 길이가 800m 로 전 구간에서 가장 길었다. 범람하는 낙동강에 교각을 떠내려 보내기도 여러 번이었다. 겨울에는 통나무, 각목에 천막 쪼가리, 가마니, 벚짚, 철사, 보일러 굴뚝도 태웠고 오일 버너와 연탄난로까지 동원해 콘크리트를 양생한 끝에 개통식을 두 달 남긴 1970 년 5 월 30 일 완공했다. 그리고 당재터널이 남았다. 길이 500m 남짓한 이 터널만 뚫리면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었다.

미친 사람들의 미친 공사

처음부터 당재터널은 인간을 거부했다. 추풍령 고개를 넘어 금강을 건너야 나오는 당재고개는 측량 때도 소달구지로 장비를 날라야 했다. 긴 터널을 뚫을 장비도 기술도 돈도 없던 때라 당재터널은 산이 아니라 두 산 사이 골짜기에 최단거리로 뚫기로 설계 됐다. 바닥도 옆구리도 천장도 흙이요 잡석이었다.

1968 년 9 월 1 일 첫 삽을 뜬 지 16 일 만에 터널이 무너졌다. 입구에서 20m 들어간 곳이었다. 근로자 3 명이 흙더미에 깔려 순직했다. 심완식은 전국을 수배해 유족들을 찾았다. 할머니 한 사람이 젊은 사내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어머니가 분명했다. 서류를 보지도 않고 심완식은 절차를 밟아 슬픈 여인에게 아들을 보냈다. 낙반 사고는 13 차례나 이어졌다. 모두 11 명이 사망했다. 상하행선 합쳐서 1.1 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었지만 공사는 해를 넘겼다. 터널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를 벤 조재삼 감독관이 사흘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 괴담이 돌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공사에 들어간 지 다섯 달이 넘었다. 터널은 절반도 뚫지 못했다. 낙동대교 완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를 악물었다. 24 시간 공사 체제로 돌입했다. 터널 속에는 중기(重機)가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 지열, 매연,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기사들은 바지에 소변을 보며 장비를 몰았다. 고속도로 개통 두 달 전 하행선이 관통됐다. 사람들은 먼지 속에서 소주로 축배를 들었다. 현대건설 현장 인원들이 목욕탕에 갔더니 옷을 벗어도 몸뚱이 색이 작업복 색깔이었다. 불어터진 발가락은 달라붙어서 악취가 났다. 상행선이 남았다.

"주판을 얹으시죠"

터널 공사는 발파를 한 뒤 벽을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굳기를 기다린 다음에 또 발파를 하며 전진한다. 콘크리트 양생에 일주일이 걸린다. 예정된 발파 작업은 8 차례였고, 정상적으로는 1971년 3월 완공이었다. 하지만 개통 예정일인 7월 7일까지 남은 시간은 8주뿐이었다. 5월 10일 건설부 장관 이한림이 당재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현대건설 사장 정주영도 같이 있었다. 심완식이 보고했다. "공기 내 완공 가능합니다."

브리핑 후 이한림이 심완식의 어깨를 잡고서 멀찍이 걸어갔다. "진짜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

'값싸게'라는 원칙을 무너뜨려야 했다. 현대건설 총책임자 양봉웅과 당재 감독관 심완식,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 정주영이 만났다.

"사장님, 주판을 얹으시죠. 명예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이 바로 대답했다. "그렇시다." 정주영은 돈 대신 명예를 택했다.

정주영은 단양 시멘트 공장 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강(早強) 시멘트 생산을 지시했다. 조강 시멘트는 가격이 세 배지만 48시간이면 굳는다. 이틀에 한 번 발파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운송 시간이 긴 열차 대신 비싼 트럭으로 시멘트를 날랐다. 근로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전표 대신에 현금으로 노임을 지불했다. 정주영이 타고 다니던 캐딜락 12호가 새벽같이 현금 뭉치를 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심완식과 현장소장 이기수, 현대건설 전무 김영주는 침대 하나를 쓰며 3교대로 현장을 지켰다. 정부와 시공사와 노무자 대장, 이렇게 '미친놈 셋'이 미친 듯이 굴을 팠다.

1970년 6월 27일 밤 11시, 마침내 상행선 터널 한가운데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에서 기다리던 장관, 장관과 내내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사장 정주영도 어깨를 부여잡고 만세를 불렀다. 열흘 뒤인 1970년 7월 7일 대통령 박정희는 당재터널을 지나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통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을 찾았다. 그래서 심완식이 울어버린 것이다. 죽은 근로자들이 떠올랐고, 월남전 때 귀농에서 피 흘리며 복귀하던 전우들도 떠올랐다고 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들이 기대가 됐다고 했다. 개통 4년 뒤 심완식은 대림산업으로 이직해 중동 건설 현장을 지휘했다. 당재터널은 명(命)을 다하고 2003년 직선형 고속도로에 자리를 내줬다. 터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에는 순직자 77명 이름이 새겨져 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고역환 고청모 권동환 김경환 김광선 김다남
 김만년 김만수 김병춘 김봉열 김석기 김성복
 김성태 김인락 김인상 김정희 김종구 김창현
 김치용 노승설 노재근 문영하 문찬균 박기태
 박운길 박윤섭 박정길 박창석 박화영 방명병
 백진택 서강일 서병묵 서영돈 손익환 신광휴
 신병태 신상문 안석희 안승업 안창순 오진환

우연재 윤동병 윤치현 이강용 이성만 이의식
 이일생 이풍균 이필예 임순철 임혁 장성
 장용석 장원용 전성준 정덕계 정병채 정영모
 정원진 정윤상 정해덕 조명찬 조병길 조춘일
 조태원 진경준 진용학 차상건 최광호 최용
 최용의 최우숙 최종수 허만중 황창성



[모든 이를 대신해 심완식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첫 번째 성과라고 할까요. 그거 못 해 하고 생각하면 생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구간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보니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던군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과 거북선을 만드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듯,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개통식 날 훈장을 받을 때, '당재의 심완식'이라고 이한림 장관이 소개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머릿속에서는 거짓말처럼 지난 2년 반이 영화처럼 스쳐 갔고요. 보람, 기쁨, 성취감, 뭐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신(神)이 만든 기적에는 이유를 붙일 까닭이 없지만 인간이 이룩한 기적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경부고속도로가 기적이라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잠잘 시간에 우리는 자지 않고 밤새워 일한 거지요. 살아계신 분, 순직한 분 모두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롭습니다.

※ 다음 주 大韓國人 주인공은 '버스 안내양 언니' 송안숙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열일곱부터 실밥 뜯던 나... 大韓民國 수출은 우리 '공순이' 뭉이었다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

입력 : 2015.03.13 03:00 | 수정 : 2015.03.13 08:46

[4] 구로공단과 '공순이 누나' 고선미

중학교도 못나온 어린 소녀들, 작업대서 키가 자라고 생리도 시작

"오빠 대학 보내고 약값 벌어야 해" 그땐 그런 희생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힘든데 월급이 너무 적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 채 일만 해...

변신한 구로 IT 단지 놀러가면 말한다 "아들아, 엄마 여기 공순이였어"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서울 가던 날

"집 구하고 돈 좀 쌓이면 너랑 동생도 부를게." 엄마는 짐 보따리를 지고서 열차에 올랐다. 1979년 여름이었다. 열여섯 살 된 소녀 고선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울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 여행 하면서 살아야지.' 예쁘장한 선미는 스텐더디스가 꿈이었다. 나이 비슷한 막내 이모, 외사촌 언니와 함께 미스코리아를 흉내 내며 놀던 소녀였다. 동네 언니한테서 옷 만드는 기술도 배우던 차에 서울로 간다니, 이 시골 소녀는 이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선미는 충남 조치원에 살았다. 아버지·엄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열차 상인에게 계란이며 오징어를 대주던 아버지 덕에 유복하진 않아도 남부러울 일 없이 살았다. 책보자기 대신에 책가방도 있었고 레이스 달린 자주색 원피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하늘로 갔다. 선미네는 가난 구덩이에 빠졌다. 돈 벌러 간 엄마는 이듬해 선미와 남동생을 서울로 불렀다. 엄마는 구로공단의 의류 공장 대우어패럴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엄마는 남매를 가리봉오거리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현관 뒤로 부엌이 나왔다. 연탄가스 냄새가 났다. 아궁이 위 미닫이문을 여니 방이 있었다. 한 사람 눕기 딱 좋았다. "...." 말이 없는 선미에게 엄마가 말했다. "내일 따라오너라."

며칠 뒤 선미는 엄마가 일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의상 기술을 보더니 공장 사람은 선미를 완성반으로 보냈다. 완성된 옷에 단추를 달고 마무리를 하는 팀이었다. 천을 다리고 실밥을 숙아내 미싱사들에게 넘기는 '시다'보다는 편했다. 완성된 옷을 상자에 담을 때마다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꿈도 꾸깃꾸깃 구겨서 집어넣었다. 선미는 '공순이'였다.

구로공단, 기적의 시작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無底坑)이라고 한다. 그 끝은 지옥이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무저갱이었다. 사람들은 가난했고, 남아돌았다. 아니, 일자리가 부족했다. 해마다 '을축년 홍수'를 들먹여야 할 정도로 대홍수가 몰아닥쳤다. 홍수에 흥년까지 겹친 농촌 사람들은 무작정 도시로 올라왔다. 농촌은 비어갔고 도시에는 가난이 가득했다.



▲ 1973년 7월 21일 구로공단 퇴근길 풍경이다. 앳된 소녀들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걸음을 옮긴다. 그 누구도 사진기자를 눈여겨볼 여유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공순이 누나들은 그렇게 살았다.

먹고살 길은 수출뿐이었다.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다. 1964년 5월 20일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공단을 열었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판자촌과 야산, 그리고 미 8군 탄약 창고 터였던 별판에 섬유와 봉제, 전기 제품 같은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속속 들어섰다. 1967년 구로공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해 3억 2000만 달러였던 대한민국 수출액은 10년 뒤인 1977년 100억 달러가 됐다. 수출 품목 1~3등은 섬유·의류·봉제, 전기·전자조립, 가발과 잡화였다. 1970년대 구로공단 주력 업종들이다. 1971년 대한민국이 수출한 10억 달러어치 상품 가운데 1억 달러가 구로공단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발전은 구로공단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기적 뒤에는 여자들이 있었다. 근로자도 노동자도 아닌, 그냥 공순이라고 하는 여자들이었다.

벌집, 그리고 긴 머리 소녀들

수출액이 늘수록 여공들의 삶은 고단해져갔다. 근로자 절대다수가 어린 여자였다.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이가 많았다. 많은 여자아이가 공단에서 생리를 시작했고, 작업대 앞에서 키가 자랐다.

아이들은 주·야간 교대 근무자 서너 명이 월급을 쪼개서 별집에 세 들어 살았다. 별집은 겉은 단독주택인데 들어가 보면 복도 양편으로 부엌 딸린 단칸방 수십 개가 붙어 있는 집단 자취 집이다. 여자들은 비키니 옷장, 경대와 앳은행이 상을 함께 썼다. 화장실은 수십 명이 같이 썼다. 한집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어쩌다 만나는 날이면 아이들은 함께 라보때를 먹었다.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는 뜻이었다.

1973년 추석을 앞두고 별집에 살던 세 자매가 죽었다. 미닫이문 틈으로 부엌 연탄가스가 스며든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올라와 전기 제품 공장과 완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 된 여자들이었다. 열일곱, 열아홉, 스무 살 된 꽃들이 허망하게 졌다. 1975년 포크 듀엣 둘다섯이 '긴 머리 소녀'를 히트시켰다. 노래 가사는 이렇다. '빛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중략) 개울 건너 작은 집의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그해 대한민국 주부와 여대생과 여공들은 너나없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길렀다. 많은 사람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윤 초시네 증손녀를 떠올렸고, 가족을 위해 공단으로 떠나는 시골 소녀들을 떠올렸다. 둘다섯 멤버 이두진은 "희극배우 손철이 써준 가사를 손봐서 공단으로 떠나며 눈물겨운 작별을 했을 사춘기 소녀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다. 둘다섯은 구로공단을 자주 찾아와 공연했다.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무대 아래에는 깊은 울음바다가 열렸다.

타이밍으로 버틴 철야

선미는 사정이 나왔다. 엄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으니까. 낮에는 공순이지만 밤에는 야간고 학생이었으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조회를 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줄지어 서서 사가(社歌)를 합창하고 국민체조를 했다. 사가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서~'로 시작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라에서는 수출 역군(役軍)이라고 했고, 아침마다 대서양을 건너는 일을 한다고 하니 선미는 자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쭐했다.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다녔다. 선미가 치마와 블라우스 두 벌씩과 구두 두 켤레로 사는 동안 남동생은 교복을 입고 청바지를 입었고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신었다. 가끔 선미는 생각했다. '왜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하지만 남동생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었다. 한 집의 기둥인 남자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고, 계집아이는 그 남자를 지원해야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본봉이며 잔업수당이 깨알같이 적힌 노란 월급봉투는 뜯지도 않고 엄마한테 줬다. '힘든데, 월급이 참 적다'고 느꼈지만 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는 어디서 왔니?" 어느 날 새로 온 어린 동료에게 물었다. "정읍." 애도 재도, 건너편 아이도 대답이 똑같았다. 고향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입사일도 같았다.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꿈도 똑같았다. "우리 오빠 대학 보내고 우리 아버지 약값 벌려고." 그 아이들 눈동자에서도 '내 희생 하나로' 같은 비장함은 보이지 않았다. 희생은 그저, 당연했다. 그래서 그 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눈물을 찍다가 '나도 그랬잖아?' 하고 웃는다.



▲ 구로공단의 과거와 현재. 위 사진은 1967년 4월 1일 구로공단 준공식 풍경, 아래는 21 세기를 맞아 변신한 구로디지털단지 야경이다. /박종인 기자

가끔 야근을 마치면 가오리로 놀러 다녔다. 가오리는 가리봉오거리를 줄인 말이다. 가오리에는 쫄면집도 있었고 디스코텍도 있었고 음악다방도 있었다. 500 원이면 커피 한 잔에 좋아하는 팝송을 신청해 들을 수 있었다. "다음 곡은 가리봉동에서 오신 고선미양이 신청한 노래입니다." 음악다방에서만큼은 공순이가 아니었다. 고선미였다.

아이들은 여대생 흉내를 냈다. 책을 매는 책 밴드에 두꺼운 책을 묶어 들고 다녔다. 높은 구두를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이대 앞과 여의도광장을 걸어 다녔다. 가끔씩 남자 대학생들이 와서 말을 걸었다. "우리 만날래요?" 아이들은 도망치듯 별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곤 했다. 지금도 공단 출신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체력이었다. 철야를 하고 잔업을 해내야 했다. 실을 만드는 방적 공장에서는 면접시험이 달리기였다. 기다란 방적기 수십 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실을 고르는 체력이 필요했다. 철야에 지친 여공은 '타이밍'을 먹었다. 타이밍은 카페인이 가득 든 각성제였다. 여공들은 멍한 정신 상태로 낱밤을 새고 집으로 돌아갔다. 졸다가 미싱 바늘에 손톱 사이를 찔리고 다림질 기계 사이로 손을 납작하게 눌린 사람도 많았다.

선명한 기억들

공단 가로등은 희미했다. 선미의 삶도 희미했다. 정읍에서 온 계집아이들도 어두웠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노동 집약형 상품을 저가(低價)로 수출해 달러를 벌던 시대였다. 근본은 저임금이었으니, 수출 역군들은 저임금을 감내하며 작업을 했다. 돈을 벌어도 고향집에 보내고 적금을 붓고 나면 쫄면 하나 사 먹기도 버거웠다. 도대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몰랐다. 퇴근할 때면 좁은 수위실에서 온몸을 '센타 까이며(수색당하며)' 공장 물품 도둑으로 몰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일했다. 그러다 1985년 마침내 닥칠 게 닥쳤다.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제히 파업을 한 것이다. '구로공단 동맹파업'이었다.

"선미야, 노조가 생기면 월급이 올라." 1984년 어느 날 이웃 공장에 다니던 아는 언니가 말했다. 자기네 공장에서는 노조원들이 관리직에게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급이 오른다고? 그해 선미가 다니던 대우어패럴에 노조가 설립됐다. 선미도 가입했다. 공단에 노조가 속속 설립됐다. 30년 동안 저임금 저가 제품에 익숙하던 공단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엇갈린 현실 인식과 불만은 결국 1985년 6월 전체 구로공단의 연대 파업으로 이어졌다. 공단과 대한민국은 오래도록 후유증을 앓았다. 어떤 이는 이를 '과격함 폭력 투쟁'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산업화의 기적과 함께 구로공단이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사건'이라고 불렀다.

선미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둠 속에 갇혀서 각목으로 맞아 입원했던 병실, "똑바로 자백하지 않으면 엄마까지 구속한다"던 덩치 큰 형사, "너 때문에 나까지 잘렸으니 뭘 먹고사느냐"며 화를 내던 엄마 얼굴까지. 첫 월급도 첫 출근도 새카맣게 잊었지만 너무나도 날카로운 그 기억들.

결혼,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

해고당한 선미는 하도급 업체를 전전했다. 조합원 이력서로 대기업 취직은 불가능했다. 그러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착하고 믿음직한 공장 동료였다. 1994년까지 공장을 떠돌다 미싱을 들여다 놓고 공장을 차렸다. 미싱사와 시다가 퇴근하면 남편이랑 둘이서 잔업을 했다. 두 아들은 작업판 위에 재우며 일했다. 못 배운 게 서러워서 회초리로 손바닥 때리며 가르쳐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대학원도 보냈다. 집도 샀다. 그러다 IMF 외환 위기를 만나서 공장을 들어먹었다. 지금은 화장품 방문 판매사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들은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로 떠났다. 21 세기 대한민국이 그러하듯 구로공단은 첨단 IT 단지로 변신했다. 가오리는 디지털단지오거리로 개명됐다. 다니던 공장은 아웃렛으로 변했다. 선미네 가족은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한다. 가끔 어른이 된 아들들에게 말한다. "나, 여기 공순이었어." 고객이 된 공단 사모님들에게도 말한다. 여공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윈두 살이 된 선미는 경기도 광명시에 산다. 소녀 가장, 처녀 가장으로 살았던 구로공단까지 전철역 하나 거리다.



▲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앞에 선 고선미. /박종인 기자

[고선미가 말합니다]

엄마한테 원망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나는 미성년자였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민망해서 한 소리라는 거 잘 압니다. 당신도 고생만 하다 늙었으니까요. 더 배우지 못한 거 후회가 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서러워서 아이들한테 모질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배우지 못해서 너희를 이렇게밖에 못 길러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효잡니다. '조금도

서운한 적 없었으니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가지고 있던 짐을 벗었습니다. 행복과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 다음 주 大韓國人 주인공은 '경부고속도로와 심완식' 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난 막장 속 '산업戰士'... 탄광이 영원할 줄 알았다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

입력 : 2015.03.06 03:00

[3] 늙은 광부 한창석의 꿈

- "광부, 딱 1 년만 하자" 삼척行

당시 광부 월급은 공무원의 3 배... 모든 게 외상, 쌀·연탄은 공짜

하지만 탄가루 몸에 박고 사는 인생,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 석유파동 후, 1 년 365 일 炭을 캐다

석탄 증산은 愛國, 난 산업의 전사... 그러나 1988 년 석탄산업의 사망선고

4 년 후 난 실업자가 됐고 아직도 태백 상장洞을 못 벗어났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1974 년 4 월 어느 날 서른 살 먹은 한창석은 삼척행 완행열차에 올랐다. 창석은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람이다. 구례구역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제천, 제천에서 태백, 이렇게 꼬박 하루 걸려 삼척 문곡역에 도착했다. 탄(炭)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오갔다. 아스팔트 도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 구둣발이 도로 속으로 발목까지 쳐박혔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탄가루가 뉘처럼 쌓인 황톳길이었다.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던 '막장 도시' 삼척이 그렇게 구례 촌놈을 맞았다. 삼척 장성과 황지는 훗날 삼척에서 분리돼 태백시가 되었다.

"내가 왜정 때 탄광 끌러가 봐서 잘 알아. 광부는 절대 허락 못 하네."

석 달 전 창석은 광양 처녀 옥례와 결혼했다. 장인은 탄광에 가겠다는 사위를 극구 말렸다. 칠순에 접어든 부모님도 결사반대였다. 나이 마흔 다 돼서 얻은 외동아들이 막장에 간다니. 하지만 초등학교를 2 학년 때 관두고 열다섯 살 이후 서울 공사판을 전전한 청년이 돈 벌 곳은 막장밖에 없었다. 창석은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며 열차를 탔다. 일곱 살 아래 각시는 집에 남겨뒀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펼쳤다. 석탄 생산은 국부(國富) 창출 동력이었다. 대한민국에 연료는 무연탄이 유일했다. 민둥산에는 산림녹화 계획이 세워져 땀감도 बे지 못했다. 발전소는 석탄을 썼고, 공장도 석탄을 썼고, 가정집도 연탄을 썼다.

1970년 겨울은 따듯했다.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상 난동(暖冬)은 3년을 갔다. 석탄 산업의 위기였다. 그러던 1973년 12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한국 유가도 12월 4일 자정에 전격적으로 30% 인상됐다. '똥값'이 됐던 석탄이 다시 '금값'으로 올랐다. 정부에서는 다시 석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격상했다.

한창석이 태백행 열차를 탄 것은 그다음 해였다. 두 달 뒤 따라온 각시는 시커먼 흙길을 보며 뭍서리를 쳤다. 신랑이 말했다.

"어차피 1년이다. 죽으라고 돈 벌어서 서울 가서 잘살자."

창석이 취직한 동해탄광 사택촌은 상장동에 있었다. 신혼집이던 상장동 구멍가게의 셋방 주인 할아버지는 "기왕이면 집을 사라"고 권했다. 창석은 "곧 떠날 사람"이라며 거절했다. 1년은 2년이 되고 10년이 되더니 40년이 흘렀다. 딸 하나와 아들 셋이 태어났다. 일흔한 살이 된 창석은 지금 40년 전 셋방에서 100m 떨어진 경로당 앞에 살고 있다. 늙은 광부(鑛夫) 한창석은 지금 태백 사람이다.

■■ 쥐들과 나눠 먹는 막장 속 도시락

막장 생활의 대가는 일반 공무원 월급의 세 배였다. 인감증만 있으면 모든 게 외상이 가능했다. 인감증은 증명사진과 인감도장이 찍힌 재직증명서다. 쌀과 연탄은 공짜로 나왔다.

창석은 굴진반에서 일했다. 선두에서 갱도를 뚫고 전진하는 게 굴진(掘進)이다. 막장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선 1m50cm짜리 도화선을 쫓았다. 점화는 담뱃불로 했다. 안전거리인 80m 후방까지 잔걸음으로 1분 20초가 걸렸다. 창석은 그래서 막장에서 담배를 배웠다.



▲ 광부들이 캐낸 석탄은 대한민국의 온돌방을 데우고 공장 엔진과 발전소 터빈을 돌리는 동력이었다. 사진은 1974년 6월 7일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들이 입갱(入坑)하는 장면이다.

발파가 이뤄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채탄반 사람들이 갱목을 등에 지고 들어갔다. 갱목은 동발이라 불렀다. 하나에 쌀 반 가마 무게의 동발을 어깨에 메고 좁은 굴을 네 발로 걸어갔다. 동발을 위와

양옆에 세우면 옆으로 지굴(枝窟)을 뚫고 탄을 켰다. '노보리'라고 부르던 지굴은 어깨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채탄반은 노보리로 기어들어가 갱을 넓힌 뒤 다시 동발을 세우고 곡괭이와 삽으로 탄을 켰다.

광부들은 3 교대로 일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갑(甲)방, 점심반인 을(乙)방, 밤에 들어가는 병(丙)방. 병방은 자정에 들어가 아침 8 시에 나왔다. 남편들이 출근하면 부인들은 남편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돌려놓았다. 안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광부들은 쥐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쥐들은 친구였다. 쥐가 있으면 거기는 메탄가스 없이 공기가 맑고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다. 탄가루 묻은 계란말이와 김치에 맨밥이지만 광부들은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다.

작업복 속에서 수건을 꺼내 짜내면 물수건처럼 땀이 쏟아졌다. 장화를 벗어도 마찬가지로였다. 갱도를 나올 때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퇴근하면 막걸리 한 사발과 삼겹살로 폐 속 탄가루를 씻어내렸다. 창석은 술도 막장에서 배웠다.

■■ 삼겹살·막걸리로 탄가루 씻어내

창석은 그날을 기억한다. 멀리서 굉음이 들리더니 갱도가 무너졌다.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던 옆 갱도와 너무 가까웠다. 동발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안전등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창석은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누르며 무작정 후퇴했다. 왼쪽 이마에 꿰맨 흉터는 지금도 남아 있다. 탄맥(炭脈)에 스며든 물길이 터져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실려 나온 동료들의 시신(屍身)도 여러 번 보았다.

"죽은 혼을 내보내기 전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갔다. 막장에서 서로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밖에 없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탄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채용됐다. 여자들은 울어대는 아이들을 뉘어놓고 귀를 막으며 일터로 갔다.

공장마다 석탄을 달라고 아우성쳤고, 가정집에서는 연탄불이 빨리 꺼진다고 불평했다. 온돌방에도, 공장 굴뚝과 발전소 터빈에도 광부들의 한숨이 타들어갔다. 창석은 1 년 365 일 일했다. 어느 해부터 큰 달은 하루 쉬었고 또 어느 해부터 한 달에 두 번 쉬게 되었다.

쉬는 날이 오면 태백시를 관통하는 황지천변은 광부 가족들로 붐볐다. 여자들은 작업복을 빨았다. 안 그래도 탄가루투성이인 개울물이 시커멓게 변했다. 남자들은 납작한 돌 위에 삼겹살을 굽고 막걸리를 먹었다. 돼지고기와 막걸리는 몸속 탄가루를 씻으려는 절박한 의식이었다. 외지인들은 광부들이 대낮부터 취해 있다고 욕을 해댔다.



▲ 1980년대 초 태백 탄광촌 모습.

태백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던 해, 창석은 진폐의증을 신고받았다. 진폐증은 폐에 탄가루가 쌓여 조직이 굳는 병이다. 의증은 진폐증 진단의 전 단계다.

"다들 탄가루 몸에 박고 사는데 뭘." 마누라는 남편 죽는다고 울었지만 창석은 담담했다. 오히려 진폐증 진단으로 광산에서 쫓겨날까 두려웠다. 똑같은 이유로 정기 검진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되어 죽었다. 창석은 지금 진폐증 7급 환자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한없이 목이 마르다. 치유 가능성은 제로다.

월급날이 되면 여자들은 일 나간 남편들 대신에 탄광 사무소 앞에 줄을 섰다. 태백 시내에 현금이 쏟아졌다. 인파에 놀란 개들이 '윽윽' 하고 짖어대면 '만복이들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다들 웃었다. 사람들은 개를 '만복(萬福)'이라고 불렀다. 혼자 온 남정네들은 술집으로, 유곽으로 몰려갔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黃池) 옆에 있던 요정 대구관은 여자가 100명이 넘었다. 하지만 대개 단골집은 싸구려 선술집이었다. 광부들은 김치에 부침개, 삶은 돼지고기와 막걸리로 일체 세상 고민을 작파해버리고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창석은 10·26도 단골 부산집에서 알게 되었고, 5·18도 부산집에서 라디오로 들었다.

■■ 다닥다닥 붙은 탄광촌 집들

1978년 12월 2차 석유 파동이 터졌다. 배럴당 10달러 선이던 원유가 40달러까지 치솟았다. 대한민국에서 석탄은 다시 한 번 주된 에너지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석탄 증산은 애국이었다. 창석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닦는 산업 전사였고,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었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교육열 충만한 아버지였다. 물려받은 가난은 자기와 아내 옥례에게서 끝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내였다.

그 무렵 월부 장사들이 탄광촌을 찾았다. 장사치들은 인감도장만 있으면 할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유혹했다. 도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유혹이 하도 커서 제아무리 지독한 자린고비라도 인감도장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탄광촌 집들은 좁은 골목을 경계로 많게는 열 집, 스무 집이 벽 하나를 두고 붙어 있었다. 탄가루가 날릴 통로를 최소화한 구조다. 벽은 얇아서 1호 집에서 레코드판 트는 소리가 10호 집까지 다 들렸다. 10호 집이 라디오를 듣다가 1호 집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면 경쟁적으로 텔레비전을 샀다. 어느새 창석의 집에도 전축이 들어왔고 안테나가 솟았다. 아이들은 세계문학전집을 읽었다. 여자들은 금반지계(契)를 만들고 금딱지에 다이아몬드며 진주를 몸에 감았다.

과소비? 아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일만 하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못 배우고 가난해서 막장으로 왔는데 막장에서까지 문화에서 소외돼 살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산업 전사라는 이름으로 막장과 전투만 벌이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광부들은 "이 궁벽한 탄광촌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며 장사치들에게 인사하고 물건을 받아갔다. 한 번도 내일을 꿈꿔보지 못한 광부들의 통장은 폐광된 갱도처럼 비어갔다.

■■ 현재 무연탄 탄광은 5개뿐

세상은 또 바뀌고 있었다. 석유 가격이 안정되자 나라에서는 석탄 대신 석유를 산업 동력으로 선택했다. 가정집은 연탄아궁이를 버리고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찾았다.

1980년 4월 22일 허망한 꿈과 절박한 현실이 정선 사북탄광에서 충돌했다. 작업 환경에 비해 터무니없는 저임금에 광부들이 나흘 동안 격한 시위를 벌였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위 소식에 창석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창석은 묵묵히 막장으로 들어갔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 나라가 산업 역군이라고 치켜세울 때도, 동발에 깔려 황천 입구까지 갔을 때도 창석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1986년 영월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던 영월 마차리 광산이 무기한 휴광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에너지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문 닫은 갱도를 다시 열어봐도 탄은 나오지 않았다. 88 서울올림픽이 끝났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흔(戰痕)에 신음하는 후진국이 아니었다.

올림픽 폐막 후 두 달이 지난 12월 21일 정부가 석탄 산업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탄광은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석탄 산업의 사망선고였고, 산업 전사의 부음이었으며, 속칭 '노가다'를 양산하는 선전포고였다. 실행은 전격적이었다. 대한민국 탄광 347개 가운데 1989년 한 해에만 125개가 문을 닫았다. 1999년까지 모두 336개가 폐쇄됐다. 한 해 2429만 5000t에 달했던 무연탄 생산량은 419만 7000t으로 줄었다. 6만명 넘는 광부 가운데 1989년 한 해에만 3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광부들은 그제야 세상이 바뀐 사실을 깨달았다. 한창석도 그중 하나였다. 창석은 1992년 동해탄광 폐광으로 실직자가 되었다.

1989년 합리화정책 전후 석탄산업 통계



자료: 대한석탄협회

1988년			2014년		
무연탄 생산량	탄광 수	광부 수	무연탄 생산량	탄광 수	광부 수
2429만5000톤	347개소	6만2259명	174만8000톤	5개소	3427명

창석은 서울지하철 공사장을 옮겨 다녔다. 경기도 안산 건물 공사장에서도 일했고 태백으로 돌아와 '쫄딱구덩이'라고 부르는 코딱지만 한 개인 광산에서도 잠시 일했다. 그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아내 옥례가 대신 일을 했다.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찬사는 온데간데없었다. 지금이야 관광 도시로 변신 중이지만 태백은 한동안 인적 드문 유명 도시였다.

늙은 광부는 끝내 상장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막장 인생 끝에 남은 건 방 두 칸짜리 집 한 채와 탄가루 가득한 폐 두 개다. 명절 때면 시집·장가가서 대처에 사는 아이들이 찾아와 위로가 된다.

부부는 가끔 서로에게 푸념을 한다. "어이, 산업 전사님. 당신도 탄광이 영원할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 건데, 그지?"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남은 무연탄 광산은 5개다. 막장에서 탄을 캐고 있는 광부는 모두 3427명이다.



[늙은 광부 한창석이 말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함께 죽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화도 함부로 내지 않았고 밥도 나눠 먹고 공기도 나눠 마셨습니다. '죽은 혼을 내보내기 전에는 작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죽음과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막장 막장 하며 천대받던 바로 그 막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30~40 년 같이 살다 보니 하나같이 진폐증을 앓고 있고 어떤 친구는 벌써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산업전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막장에서 아이들 넷 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까요. 아쉽기는 합니다. 신혼 때 살림 차렸던 셋방이 길 건너편인데 40 년이 지나도 마누라랑 여기 살고 있습니다. 꿈이라.... 딸기 농사를 하고 싶은데 늙어버려서... 배운 게 없어서....

※ 다음 주 大韓國人주인공은 '우리 시다 누나, 고선미' 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멀건 수제비 씹으며 빌딩 번기부터 닦았다... 밑바닥 人生이 움텸다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

입력 : 2015.02.27 03:00

[2] 소년 구자관과 청계천 [下]

발버둥친 청춘의 나날들- 美軍왁스 쓰다 세관 끌려가고
직접 왁스 만들다 폭발 火傷... 유서쓰고 잠수교 돌진도 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 통밀가루 수제비 건더기 모두 주고 소금국물만 드셔...
그러니 혈압 오죽하셨을까... 일흔한 살 지금 눈물이 난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지난 줄거리 | 서울 청계천변 개미마을은 피란민이 주를 이루며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소년 구자관은 주경야독하지만 돈을 벌어도 간 곳이 없다. 자관은 군에 입대하고, 부산시장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한다. 별명은 '불도저'다.

■■■ 패션쇼가 열리던 날

1963년 11월 30일 구파발에서 온 남자가 서울 반도호텔에서 패션쇼를 열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피부가 하얀 이 스물여덟 먹은 사내는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에레간트'한 선을 더 아낀다"고 했다. '웨스턴나이즈 되어 있어 귀에 거슬리는' 말씨와 억양을 가진 사내 이름은 앙드레김이라고 했다. 본명은 김성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염원이 담긴 청일점(靑一點) 디자이너 김봉남의 예명(藝名)임이 밝혀졌다.

패션쇼가 열리던 날은 무척 추웠다. 벌써 20일 전 오후 3시 10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예년보다 열하루가 빠른 첫눈에다 기온도 8.3도나 낮은 영상 2.8도였다. 12분 동안 떨어진 눈에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어른들에겐 불길한 강설(降雪)이었다. '철갑을 두른 듯한 낙락장송'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남산의 버려진 하수도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랬다.



▲ 남산 하수도관에 사는 사람들 - 첫눈 내린 다음 날인 1963년 11월 11일, 버려진 하수도관에 사는 계집아이 하나가 멍한 눈으로 사진기자를 바라보았다.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날 조선일보는 "남대문에서 남산공원으로 오르다 보면 토관이 즐비하게 누워 있다"고 했다.

"머라고, 이것들이!"

1962년 11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부산직할시 승격안이 부결됐다. 12대 시장 김현옥은 야간열차로 서울로 달려왔다. 5·16에 참가한 육군 제3항만사령관이요, 서른여섯 살 된 패기만만한 장군 앞에서 최고회의는 찢찢맸다. 이듬해 부산은 직할시로 승격됐다. 앙드레김이 화려하게 각광받던 그해, 김현옥은 예편과 함께 13대 시장에 취임했다. 부산은 이면 도로 하나 없고 항구는 큰 배는 붙일 수 없이 들쭉날쭉했다. 김현옥 시장은 이 전시(戰時) 수도를 개조했다. 팔도 피란민이 뒤엉켜 살던 판자촌을 갈아엎고 서민 주택 구역을 만들었다. 부두는 직선화하고 도로도 확장했다. 군인답고 수송 병과 출신다웠다.

■■■ '불도저' 김현옥

구자관이 강원도 원통에서 뻑뻑 기고 있던 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다. 보릿고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해 3월 초 대통령 박정희가 확 바뀐 부산을 찾았다. 한 달 만에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불도저가 입경(入京)했다. 불도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이 온통 판잣집이다. 14만 5000 채다. 교통도 문제다. 교통난을 광복절까지 31% 완화하도록 하겠다."

'서울공화국'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독립문과 마포, 동쪽으로는 돈암동과 청량리와 왕십리까지였다. 도로는 거기에서 끝났다. 광화문에서 국경을 넘어 갈현동까지 지프차로 반나절이 걸렸다. 전차(電車)는 시속 20km로 기어다녔다. 그 좁은 영토에 자동차가 2만대를 넘었고 버스만 3000대에 육박했다. 농촌 사람들이 몰려든 서울에는 350만명이 살았다. 6·25 전쟁 때의 두 배가 넘었다. 청계천변은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판잣집은 헐어도 헐어도 도깨비처럼 또 생겨났다. 많은 여자가 무작정 상경해 종묘 앞 공터 사창굴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종삼(鐘三)'이라 불렀다.

소설가 이호철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했다. 제목은 '서울은 만원이다'였다. 김현옥의 눈에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야기 속 사람과 사건

① 앙드레 김 (1963년)



③ 문세광 사건 (1974년)



② 불도저 시장 김현옥 (1966~70년)



④ 잠수교 개통 (1976년)



아들 자관이 군대 간 사이 아버지는 미아리에 청소 솔 공장을 차렸다. 군에서 제대한 자관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만들며 생계를 꾸렸다. 청계천 복개 구간은 광고에서 오간수교를 건너 동쪽으로 급속하게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다. 개천이 사라진 곳에는 도로와 점포가 생겨났다. 자관에게는 청소할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었고, 불도저에게는 도로를 놓을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자관은 아예 청소 회사를 차리고 식당과 빌딩 청소에 뛰어들었다. 1968 년이었다.

■■■ 3·1 고가, 철거된 개미마을

불도저는 아현동에 고가도로를 만든 뒤 관철동에 31 층짜리 빌딩을 짓고 광고에서 마장동까지 고가도로를 세웠다. 3·1 빌딩과 3·1 고가도로였다. 3·1 은 일제 청산과 근대화를 상징했다. 고가도로는 1969 년 3 월 22 일 개통됐다. 도로를 불신한 미군이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개미마을의 잿빛 영토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철거된 개미마을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 당했다. 세종로와 명동 지하도, 남대문시장 육교, 홍제동 도로 확장 공사는 불도저 취임 첫째 4 월 19 일 착공해 10 월 3 일 개천절에 끝냈다. 육교는 짓기 쉽다고 광복절에 끝냈다. 지하도 6 개, 육교

16 개와 도로 5 개의 건설 공사가 한날한시에 시작됐고 거의 동시에 끝났다. 공사판이 돼버린 서울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김현옥이 말했다. "나는 모른다.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아무도 묻지 않았다. 2 년뒤 11 월 30 일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종 황제 시절인 1899 년 5 월 17 일 처음 종을 울린 지 69 년 6 개월 13 일 만이었다.

■■■ 우리 어머니

먹고살 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아웃소싱, 1960 년대 말로는 미화 용역이었다. 구자관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월 6 푼짜리 달러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윤보다 이자가 더 많았다. 물건은 팔면 팔수록 손해였다. 몸을 쓰는 청소 일이 오히려 나았다. 만든 걸레는 아버지가 나가서 팔고, 자관은 아줌마들을 고용해 식당 변소와 빌딩 복도를 청소하고 다녔다. 자관은 일하는 곳마다 귀신처럼 찾아오는 빗쟁이들을 피해 다니면서 변기를 닦았다.

자관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수제비를 밥상에 올리곤 했다. 통밀가루로 만들고 멸치 몇 마리로 육수를 낸 멸건 수제비에 건더기도 별로 없었다. 자관은 자기 수제비를 다 건져 먹고 옆에 있는 어머니 수제비도 건져 먹었다. 어머니는 국물로 배를 채웠다. 수제비가 떨어지면 어머니는 별미로 인기였던 라면을 끓였다.

"왜 또 국물을 드세요?" "수프가 닭고기라잖니. 소고기 대신에 이거라도."

무학(無學)이지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운 여자였다. 한자투성이 신문을 읽을 줄 알았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줄 아는 어머니였다. 노름판에서 돌아온 남편 밥그릇에 밥 대신 화투짝을 넣어 투전판 출입을 끊게 만든 지혜로운 아내였다. 투덜대는 아들에게 건더기를 다 주고 짜디짠 국물로 속을 채우는 현명한 어머니였다. 어느 날 철없는 아들이 집에 와 보니 그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고혈압에 반신불수였다.



＊ 고단한 세월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노름을 끊고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은 1970 년 먼저 하늘로 갔다. 어머니는 그해 부엌에서 아들 밥상을 차리다 넘어져 허벅지가 부러졌다. 며칠 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네 공장 아이가 의자를 만들어줘서 변소만큼은 다리 억지로 구부리지 않아도 갈 수 있구나. 고맙다."

어느 비 내리던 밤, 자관은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며 멍하게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다리도 구부리지 못하고 낙숫물 틈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자관은 베개에 머리를 뉘며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 "제발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197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만 평생 드신 분이니 뼈는 오죽 약하며 혈압은 오죽 높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 자관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서 홍수가 난다. 그다음 날부터 자관은 함께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를 여사님이라 불렀다. 아저씨들은 선생님이라 불렀다. 밖에서는 천대받지만 집에 가면 모두가 거룩한 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닌가.

■■■ 1호선 개통식날 문세광 사건

1968년 초 북한에서 김신조 부대가 내려왔다. 가을에는 울진에 무장 공비 떼가 침입했다. 이듬해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가 살벌하게 바뀌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시장 김현옥은 서울을 요새(要塞)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북악스카이웨이 건설로 북쪽은 철통같이 막혔다. 서울 국경은 남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청소 일감도 덩달아 늘어갔다.

어머니가 낙상(落傷)하던 그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 무한질주하던 김현옥은 시장에서 물러났다. 시장 집무실 벽에는 술한 준공 테이프를 끊은 가위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김현옥은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다. 29주년 광복절이었다. 기념식이 열리던 남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가 재일 교포 문세광의 총에 맞았다. 대통령 박정희는 잠시 중단된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갔다. 며칠 동안 라디오에서는 조곡(弔曲)이 흘렀다.

■■■ 두 번 실패한 자살

구자관은 가정을 꾸렸다. 두 살 어린 박덕희와 결혼해 아들 본훈이와 딸 본아를 낳았다. 미아리 집이 헐리고 가족은 변경을 떠돌았다. 집세를 감당 못하는 가장(家長)을 보고 복덕방 영감님들은 며칠이라도 살라며 빈집을 소개해줬다. 메아리가 울리는 대저택에서 판잣집 단칸방까지 1년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 아들 본훈이는 미아리 너머 누나 집에 맡겼고 젓먹이 본아는 이모네에 맡겼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또 한 번 오래도록 조곡이 울려 퍼졌다. 세상이 뒤집혔다. 12월 12일과 이듬해 5월 17일 연이은 충격에 세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관의 밑바닥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때 많은 청소 업체는 미군 부대에서 업자들이 빼돌린 군용(軍用) 왁스를 사서 청소했다. 세관이 군수품을 빼돌린 업자들을 족쳤다. 자관은 장물아비로 몰려 서부역 옆에 있는 서울세관으로 끌려갔다. 사흘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두드려 맞고 벌금 4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자관은 이를 갈았다. "다 덤벼라. 하나도 안 무섭다." 자관은 왁스 공장을 차리고 바닥 청소용 왁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2년 6월 장마가 시작됐다. 자관은 왁스 재료를 끓이고 솔벤트를 부었다. 곳은 날이라 솔벤트 가스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연탄아궁이에 닿은 가스가 폭발했다. 눈을 떠 보니 명동에 있는 백병원 12층 병실이었다.

손가락과 팔은 달라붙고 온몸이 녹아 있었다. 사흘에 한 번씩 간호사는 자관을 목욕탕에 데려가 수세미로 상처를 박박 밀어 벗겨냈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다. 의사한테 물었다. "퇴원하면 손가락이 퍼지기는 하나요?" "지켜봐야죠."

'병신이 된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침대 아래 물통들이 요란하게 굴렀다. 의사들은 아내 덕희에게 "왜 환자를 팽개치고 나갔느냐"고 화를 냈다. 한 달 뒤 자관은 너덜너덜해진 육신을 끌고 퇴원했다. 공장은 불타고 빗쟁이들이 휩쓸고 간 사무실은 다 뒤집혀 있었다. 장부를 보니 빚만 8000 만원이 남아 있었다. 거지였다.

"수남아, 보험 좀 들자. 실적 올려줄게." 보험소장을 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이수남은 신이 나서 첫회 차(次)를 자기 돈으로 내줬다. 사망 보험금은 1억 2500 만원. 자관은 치밀했다.

'빚이 8000 만원, 옷 행상 하는 마누라가 평화시장에 가게를 얻는 데 2000 만원, 서른 평짜리 아파트가 2500 만원. 1억 2500 만원이면 먹고는 살겠다.'

자관은 유서를 썼다.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십시오. 푸른 초원 위를 달리지는 못해도 견게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숨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자관은 빨간 포니 픽업을 몰고 장충동으로 갔다. 족발집에서 낫술을 퍼마시고 잠수교로 달려가 교각을 들이받았다. 차는 박살이 났고 자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튕겨져나갔다. 또 죽지 못한 것이다. 자살이 발각되면 보험금이 없다가에 투신하지도 못했다. 미생(未生)? 산 것도 아니었고 죽은 것도 아니었다. 초라한 가정은 차를 폐기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 알루미늄 캔이 가져온 기적

1980년대 초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초대형 행사를 많이 벌였다. 프로 스포츠가 시작됐고 '국풍(國風) 81'을 시작으로 많은 이벤트가 열렸다. 1983년 KBS가 주관한 우주과학 전람회가 열렸다. 자관은 변소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고 전람회 청소 용역에 입찰했다. 신기하게도 용역을 따냈다. 첫날 밤 여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쓰레기를 모아놓으니 고물업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알루미늄 캔을 모아주면 한 개당 10원씩 쳐주겠다."

훗날 자관이 기적이라 부른 사건이 시작됐다. 유리병 대신에 알루미늄 캔이 막 나온 때였다. 콜라도 사이다도 맥주도 모두 알루미늄 캔에 담겨 나왔고, 박람회 구경꾼들 손에는 누구나 캔 음료가 들려 있었다. 마대 자루에 캔을 모아놓으면 고물업자가 현금을 주고 사갔다. 청소는

적자였다. 강통 팔아 번 돈은 그 몇 십 배였다. 박람회도 두 달 동안 수십만 명이 구경했다. 천변을 헤매던 무학 소년에게 40년 만에 코미디 같은 기적이 벌어졌다. KBS는 이후 구자관에게 용역을 계속 맡겼고 대학교와 기업들이 줄을 섰다.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용역 회사는 자관에게 화상(火傷)을 남기고 매출 5000억원짜리 회사가 되었다. 여사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모시며 이를 악물고 남의 집 청소를 하는 회사 이름은 삼구아이앤씨다.

2015년. 친척 집을 전전했던 아이들은 시집 장가 다 보냈다. 옷가지 행상을 하던 아내는 사모님이 되었다. 자관은 못 배운 게 서러워 예순 넘어 석사까지 땀. 오십 넘어 스키도 배웠다. 젊은이들처럼 가죽점퍼에 쇠사슬 감고 오토바이도 몰아봤다. 다 이루었는데 가끔 눈물이 난다. 젊은 날 그때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의 타는 가슴속을 왜 몰랐을까. 천변에서 고달픈 청년기를 살아낸 일흔한 살 먹은 이 한국인은 지금도 궁금하다.

※ 다음 주 大韓國人주인공은 '늙은 광부의 꿈, 한창석'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메밀묵통 멘 열다섯 살의 나... '판자숲의 三流 개미'였다

박종인 여행문화전문기자 ▼

입력 : 2015.02.22 03:00 | 수정 : 2015.02.23 19:33

[1] 소년 구자관과 청계천 [上]

봄이 되면 묵통 대신 구두통, 여름이 되면 아이스케키통
학교는 언감생심... 가난했던 기억밖에 없다
광화문~동대문 천변 개미마을, 삼팔따라지 6만명이 정착했다
영성한 골판지 벽 너머로 옆집 방귀소리까지 들리는...
"엄마 학교 가고 싶어요" 걸레공장 다니며 강문高 진학
"어쭈, 네까짓 게 공부?" 공장 주임은 따귀를 때렸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1945년 광복부터 2015년 현재까지 우리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고, 역사의 회오리 속을 헤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격동의 세월 70년을 지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 유튜브로 영상보기](#)

6·25 전쟁이 끝나고 6년이 지난 1959년 2월이었다. 구자관은 청계천을 걷고 있다. 작년 이맘때 자관은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두세 달씩 차이 나는 외사촌 네 명도 같은 날 졸업했다. 졸업식엔

참석했지만 자관은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살림 탓에 자관은 월사금을 밥 먹듯 빼먹고 결석도 밥 먹듯 했다. 며칠 뒤 외사촌들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서 중학교에 입학했다. 사촌들 입학식 날 자관은 꺼먼 군복을 입고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청계천으로 갔다.

'밥 먹듯?' 자관은 어른들 표현이 불쾌했다.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 바뀌었다. 아이스케키 통이 구두 통으로, 다시 메밀묵 통으로 바뀌었다. 군복은 구멍이 나고 색이 바랬다.

태어나고 일 년 하루 만에 맞은 해방은 전혀 기억에 없었다. 전쟁에 대한 기억도 어렴풋했다. 열다섯 살 소년의 뇌세포에 각인된 기억은 가난뿐이었다. 교복 입은 외사촌들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자관은 메밀묵 통을 윗도리 속으로 감췄다. 작년에도 그러했듯 봄이 오면 묵 통은 구두 통으로 바뀔 것이다.



◆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까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무허가 판자촌. 1962년 모습. /조선일보 DB

해거름 속을 걷던 발걸음이 동대문 앞 오간수교에 닿았다. 다리 아래에는 기름 영롱한 잿빛 액체가 흘렀다. 판잣집에서 흘러나온 똥물과 빨래하다 남은 양젯물, 음식 찌꺼기, 기름 낀 염색 공장 검은 폐수가 뒤섞여 만든 광채였다. 고개를 들면 빨랫줄에 걸린 염색한 군복들이 하늘을 가렸다. 박제된 듯, 세상은 딱딱한 잿빛이었다.

공장 앞에는 드럼통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통에서는 시커먼 물이 끓고 있었고, 어떤 통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천변(川邊) 좁은 공터에서 놀았다. 판잣집 사이 골목은 뛰어놀기에는 비좁았다. 장마철에 똥물이 넘친다고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 1960년 1월 동대문 주변 청계천 모습. 멀리 동신교회가 보이고 오간수교에는 전차가 다닌다. 다리 아래는 젓빛 물이 흘렀다. /조선일보 DB

빹빹 민 머리에 털웃 입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옆구리 터진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했다. 동무들이 에워싼 링, 도망갈 구석 없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서로 두들겨댔다. 맨주먹일 때만큼 아팠지만 때리는 즐거움에 고통은 잊혔다. 주먹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젓빛 세상에는 불꽃놀이가 벌어졌다.

“와, 황홀하다!” 맞은 아이가 자존심을 누르며 던진 말에 동무들은 눈두덩을 주먹으로 눌러 어둠 속에 어룡거리는 황홀경을 즐겼다.

‘니네나 나나, 삼류(三流)다.’ 맞으며 웃어대는 아이들을 외면하고서 자관은 빠져나온 메밀묵 통을 소매 밑으로 밀어 넣으며 두벅두벅 걸어갔다.

전쟁이 터졌다. 미아리고개로 인민군 탱크가 지나갔고 인민군보다 더 많은 피란민이 내려왔다. 천등벌거숭이로 38 선을 넘은 삼팔따라지들은 청계천과 중랑천, 정릉천변과 남산 기슭에 상자집을 지었다. 사는 꼬락서니가 개미집 같아서 사람들은 개미마을이라고 불렀다. 변소도 함께 썼고 판자와 골판지 벽 너머로 방귀 소리도 들렸다. 남산 기슭의 일본 육군 관사를 점령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은 미군 사격장에 움막을 지었다. 목숨을 건 산기슭의 정착지는 해방촌이라고 했다.

농부였던 자관의 아버지는 전쟁 와중에 양계장을 했다. 닭 전염병이 돈 지 사흘 만에 몽땅 죽었다. 1·4 후퇴 때 도망갔다가 와보니 남양주 금곡 집은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다 팔아 고무 공장을 차렸다. 망했다. 선비 기질이 농후한지라 손대는 사업마다 신기할 정도로 망했다. 없는 살림을 더 쪼갤 수 없어 자관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곱 남매는 외갓집, 고모 집으로 흩어져 살았다. 전쟁이 끝나고 자관네는 미아리에 집을 지었다. 산기슭에 기생하는 똑같은 상자집이었다.

청계천변 개미마을은 생명체였다. 자고 일어나면 집이 지어져 있고, 해가 지기 전에 몇 채씩 철거되거나 불이 나서 사라졌다. 탈피와 변태를 반복하는 동물 같았다. 어느새 광화문 우체국에서 동대문 사이에 갈 곳 없는 사람이 6만 명이나 모여들었다. 국수 장수, 찌뽕 장수, 뽕탕 장수에 녀마주이와 거지까지 함께 살았다.



▲ 1973년 12월 6일 청계천변에 밀집되어 있던 판자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변의 무허가 판자집들이 전소되었다. /조선일보 DB

1958년 겨울 동대문 판자촌에 큰불이 났다. 집 2000채가 홀랑 타버렸다. 집터와 개천은 시멘트로 덮였다. 그 터에 삼팔따라지들은 신식 건물을 짓고 시장을 만들었다. 4년 뒤 완공된 시장 이름은 평화시장이다. 사람들은 재봉틀 하나로 옷 가게를 차리고 군복을 물들여 팔았다. 1층은 헌책방들이 들어왔다.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던 광장시장 서울 토박이들이 안 부러운 별천지였다.

얼어붙은 건천(乾川) 주변은 나무로 얹은 2층, 3층집 숲이 장관을 이뤘다. 1층 지붕은 2층 마당이었고, 2층 지붕은 3층 마당이였다. 독 윗집과 아랫집은 쓰레기 투기를 두고 걸핏하면 아귀다툼을 벌였다.

자관은 그 숲 향기를 원 없이 맡았다. 홍수에 숲이 떠내려갔을 때 아이 얼굴에도 눈물 사태가 났다. 누가 이 난리에 내 아이스케키를 사 줄 것이며, 누가 구두를 닦겠다고 신발을 내밀 것인가. 바람이 앞섰을 파고들었다.

겨울은 홍수보다 무서웠다. 신설동 이청교 아래 겨울 모래는 쇠보다 강했다. 나이 마흔에 여섯 식구를 거느린 고물 장수 김동철이 한탄했다. "식량도 없지, 땀감도 없지, 그런데 모래까지 얼어붙었으니 탄피며 쇠불이랑 사금파리는 어떻게 파내서 돈으로 바꿀꼬!" 부부 고물 장수는 모래를 파헤치던 갈고리를 집어던졌다.

멀리 평양 출신 젊은 장로 이봉수가 만든 동신교회가 보였다. 다리 위는 만물상이었다. 미군 부대 강통도 팔았고 구호품도 팔았다. 책 좌판도 보였다. 자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관은 아이를 외면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어린 메밀묵 장수는 오간수교를 건너 다시 천변 독을 걸었다. 자관은 메밀묵 통을 메고 학당으로 갔다. 천변에는 한 교통경찰관이 세운 천막

학교가 있었다. 자관은 서울대생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산수를 배웠다. 자관은 중학교 과정을 천막에서 끝냈다.



✧ 기사 관련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세상은 장남을 위해 존재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형을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까지 보냈다. 길거리에서 대학생 형을 만나 인사하면 형은 못 본 척했다. 가끔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은 "네가 창피하고 불쌍해서 못 본 척했다"고 울먹이며 동생을 때렸다. 잿빛 거울이 또 한 번 세상을 할퀴고 갔다.

1960년 어느 날 밤 행상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자관이 말했다. "어머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탄했다. "... 외갓집 동갑내기들은 다 고등학생인데 내 아들은 구두 통을 메고 있구나."

자관은 창신동에 있는 강문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야간반은 졸업장이 없어도 월사금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다. 강문고는 훗날 용문고등학교로 바뀌었다. 자관은 낮에는 돈암동에 있는 걸레 공장에 다녔다. 출근 시각은 아침 여섯 시였다. 미아리에서 걸어서 출근하려면 새벽 네 시 반에 일어나야 했다.

"어머니, 나 조금만 더...." "일어나라. 공장 가야지."



▲ 가난한 판자촌 가족의 단칸방에서의 생활과 식사장면. /조선일보 DB

승강이 끝에 일어나면 눈가를 훔치는 어머니의 환상이 보이곤 했다. 훗날 성장한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때 우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 내가, 내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새벽에 너를 깨우는 게 힘이 들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팠다. 그런데 공장 안 가면 네가 학교를 못 가니까...."

"니미, 네까짓 게 공부?" 출근 첫날 공장 주임은 교복 입은 자관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열 사람 가운데 여덟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게 1985년이다. 사장과 주임은 매일 아침 그 한(恨)을 자관의 뺨에 풀어댔다. 뺨에 남은 출근 도장 자국을 문지르며 먼지 내뿜는 야자수 섬유를 집어 들면 옆 작업대에서 걸레 자루를 만들던 두세 살 위 예쁜 누나들이 아이를 달래주곤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오후 네 시, 퇴근하는 자관의 뒤통수에 주임은 조소와 질투를 던져댔다.

공장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탔다. 돈이 아까웠지만 버스를 타면 정확하게 다섯 시 10분 전에 닿았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었다. 집에서 공장,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한 달에 500원을 모았다. 책 한 권 값이었다. 그 돈으로 자관은 단테의 신곡(神曲)을 읽었고,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한 시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토끼잠 자고 세 시간 반 뒤 출근하고 나니 자관은 청년이 되어 있었다. 1963년 자관은 생애 첫 졸업장을 받았다.

그해 여름, 어김없이 공군기 한 대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서울 상공에 나타났다. DDT 연막 소독을 대신하는 말라티온 살포기였다. 맹독성인 말라티온은 DDT 보다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모기와 파리를 죽였다. 귀청을 찢는 굉음에 귀를 막고서 개미마을 사람들은 천변 탈출을 꿈꾸며 서둘러 장독 뚜껑을 덮었다. 8 월, 9 월 두 달 동안 사람들은 스물네 번이나 용이 되어 승천(昇天)하는 꿈을 꿔다. 한 달 뒤 박정희 후보가 5 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있어도 모두가 용이 되지는 못한다. 탈출은 쉽지 않았다. 졸업장을 받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자관에게 세상은 무서웠다. 3 년 전에는 4·19 혁명이, 2 년 전에는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청계천 곳곳에 공구리(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천(川)이 사라지고 있었다. 격변이었다.

"졸업장도 소용없네요. 군대나 가렵니다." 졸업장을 처박아두고 여전히 공장에 다니던 자관은 졸업한 지 2 년 만에 군대를 택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의 그 강원도 원통 11 사단에서 죽지 않을 만큼 고생하는 동안 부산시장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입경(入京)했다. 김현옥의 별명은 '불도저'였다. 개미마을에 전운(戰雲)이 감돌았다.



청계천 70년

1945 8·15 광복

1950 6·25 전쟁 발발.
피란민과 월남
동포들이 청계
천을 중심으로
판자촌 형성

1954 청계천 복개 및
판자촌 철거
정책 발표

1958 동대문 대규모
화재, 피란민이
주도해 신식
평화시장 설립

1958 한강 인도교 복구

1961 광교에서 오간수교
간 청계천 복개
1단계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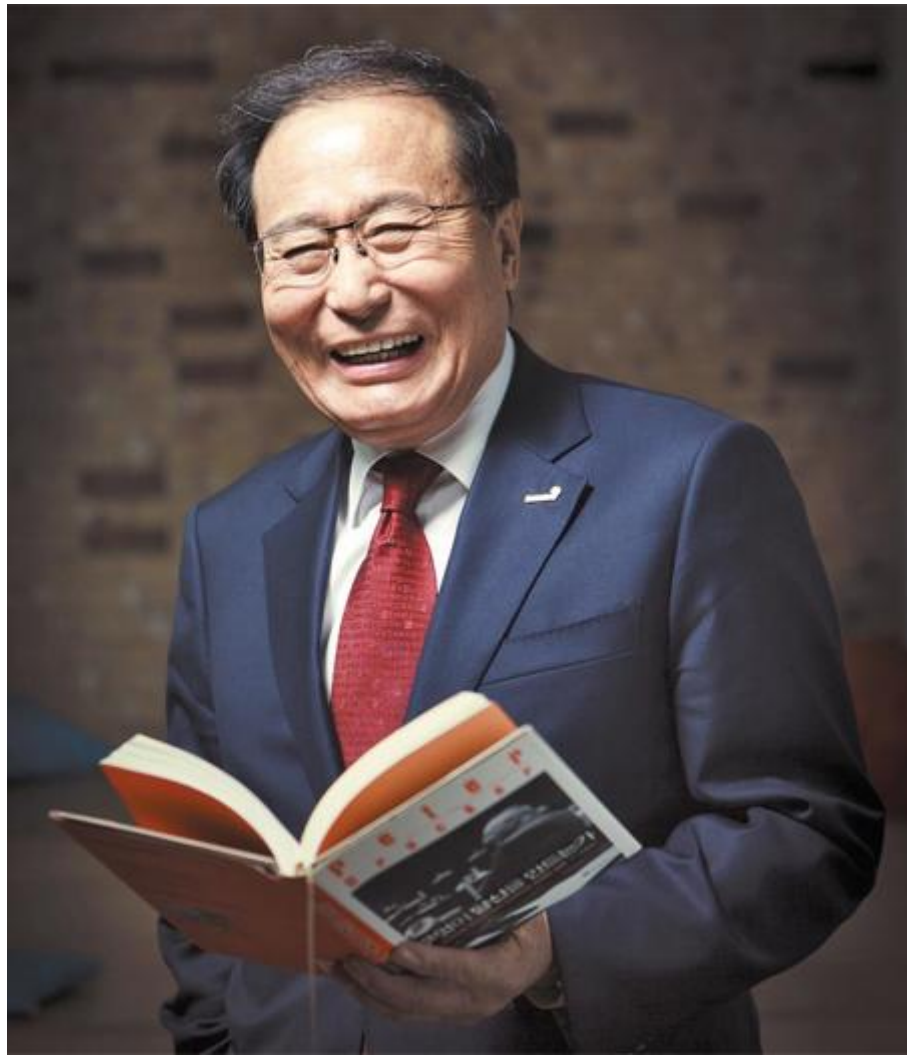
1960 4·19 혁명

1966 김현옥 서울시장,
청계천 복개 및
고가도로 착공

1961 5·16 쿠데타

청계천은 2005년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상판이 제거돼 도심 하천으로 복원됐다. 피란민들이 세운 평화시장은 동대문 시장과 통합됐다. '미사일과 잠수함도 만든다' 고 했던 세운상가도 2005년 일부를 제외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공원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인 1호로 선정됐던 고산이 이곳에 벤처기업을 차릴 정도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년 구자관과 청계천 <下>로 계속



[2015 년의 구자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떡하다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다 마찬가지로였겠지요? 사람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다'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악몽이었으니까요. 늘 한탄만 하던 저에게 초창기 우리 회사 직원 한 분이 가르침을 줬습니다. '뜨는 해는 잡을 수 있어도 지는 해는 잡지 못한다'고요. 그게 오늘 이 나라를 만든 힘이라고 생각해요. 해가지기 전에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기에 우리 모두가 악몽에서 깨어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걸레 공장 주임한테 욕먹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고요. 사는 데 급급하다 보니 변변한 사진도 없습니다. 그 힘든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 세상 뜨신 아버지와 돌아간 큰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스스로 '삼류'라 자학하며 청계천변을 하릴없이 맴돌던 소년은 지금 연 매출 5000 억원이 넘는 청소 용역 회사 삼구아이앤씨의 대표 구자관(71)이다. 두 번 자살 미수를 겪고 악몽의 터널을 살아낸 끝에 이룬 꿈이다. 구자관은 2004 년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04 학번으로 입학해 학점 3.56 으로 졸업했다. 예순네 살이었다. 2011 년에는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학위를 땀다. 예순일곱이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大韓國人, 우리들의 이야기'] 멀건 수제비 씹으며 빌딩 번기부터 닦았다... 밑바닥 人生이 움텸다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

입력 : 2015.02.27 03:00

[2] 소년 구자관과 청계천 [下]

발버둥친 청춘의 나날들- 美軍왁스 쓰다 세관 끌려가고
직접 왁스 만들다 폭발 火傷... 유서쓰고 잠수교 돌진도 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 통밀가루 수제비 건더기 모두 주고 소금국물만 드셔...
그러니 혈압 오죽하셨을까... 일흔한 살 지금 눈물이 난다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지난 줄거리 | 서울 청계천변 개미마을은 피란민이 주를 이루며 1950 년대와 1960 년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소년 구자관은 주경야독하지만 돈을 벌어도 간 곳이 없다. 자관은 군에 입대하고, 부산시장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한다. 별명은 '불도저'다.

■■■ 패션쇼가 열리던 날

1963 년 11 월 30 일 구파발에서 온 남자가 서울 반도호텔에서 패션쇼를 열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피부가 하얀 이 스물여덟 먹은 사내는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에레간트'한 선을 더 아낀다"고 했다. '웨스턴나이즈 되어 있어 귀에 거슬리는' 말씨와 억양을 가진 사내 이름은 앙드레김이라고 했다. 본명은 김성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염원이 담긴 청일점(靑一點) 디자이너 김봉남의 예명(藝名)임이 밝혀졌다.

패션쇼가 열리던 날은 무척 추웠다. 벌써 20 일 전 오후 3 시 10 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예년보다 열하루가 빠른 첫눈에다 기온도 8.3 도나 낮은 영상 2.8 도였다. 12 분 동안 떨어진 눈에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어른들에겐 불길한 강설(降雪)이었다. '철갑을 두른 듯한 낙락장송'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남산의 버려진 하수도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랬다.



▲ 남산 하수도관에 사는 사람들 - 첫눈 내린 다음 날인 1963년 11월 11일, 버려진 하수도관에 사는 계집아이 하나가 멍한 눈으로 사진기자를 바라보았다.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날 조선일보는 "남대문에서 남산공원으로 오르다 보면 토관이 즐비하게 누워 있다"고 했다.

"머라꼬, 이것들이!"

1962년 11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부산직할시 승격안이 부결됐다. 12대 시장 김현옥은 야간열차로 서울로 달려왔다. 5·16에 참가한 육군 제3항만사령관이요, 서른여섯 살 된 패기만만한 장군 앞에서 최고회의는 찢절됐다. 이듬해 부산은 직할시로 승격됐다. 앙드레김이 화려하게 각광받던 그해, 김현옥은 예편과 함께 13대 시장에 취임했다. 부산은 이면 도로 하나 없고 항구는 큰 배는 붙일 수 없이 들쭉날쭉했다. 김현옥 시장은 이 전시(戰時) 수도를 개조했다. 팔도 피란민이 뒤엉켜 살던 판자촌을 갈아엎고 서민 주택 구역을 만들었다. 부두는 직선화하고 도로도 확장했다. 군인답고 수송 병과 출신다웠다.

■■■ '불도저' 김현옥

구자관이 강원도 원통에서 뻥뻥 기고 있던 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다. 보릿고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해 3월 초 대통령 박정희가 확 바뀐 부산을 찾았다. 한 달 만에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불도저가 입경(入京)했다. 불도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이 온통 판잣집이다. 14만 5000채다. 교통도 문제다. 교통난을 광복절까지 31% 완화하도록 하겠다."

'서울공화국'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독립문과 마포, 동쪽으로는 돈암동과 청량리와 왕십리까지였다. 도로는 거기에서 끝났다. 광화문에서 국경을 넘어 갈현동까지 지프차로 반나절이 걸렸다. 전차(電車)는 시속 20km로 기어다녔다. 그 좁은 영토에 자동차가 2만대를 넘었고 버스만 3000대에 육박했다. 농촌 사람들이 몰려든 서울에는 350만명이 살았다. 6·25 전쟁 때의 두 배가

넘었다. 청계천변은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판잣집은 헐어도 헐어도 도깨비처럼 또 생겨났다. 많은 여자가 무작정 상경해 종묘 앞 공터 사창굴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종삼(鐘三)'이라 불렀다. 소설가 이호철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했다. 제목은 '서울은 만원이다'였다. 김현옥의 눈에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야기 속 사람과 사건

① 앙드레 김 (1963년)



③ 문세광 사건 (1974년)



② 불도저 시장 김현옥 (1966~70년)



④ 잠수교 개통 (1976년)



아들 자관이 군대 간 사이 아버지는 미아리에 청소 솔 공장을 차렸다. 군에서 제대한 자관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만들며 생계를 꾸렸다. 청계천 복개 구간은 광교에서 오간수교를 건너 동쪽으로 급속하게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다. 개천이 사라진 곳에는 도로와 점포가 생겨났다. 자관에게는 청소할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었고, 불도저에게는 도로를 놓을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자관은 아예 청소 회사를 차리고 식당과 빌딩 청소에 뛰어들었다. 1968 년이었다.

■■■ 3·1 고가, 철거된 개미마을

불도저는 아현동에 고가도로를 만든 뒤 관철동에 31 층짜리 빌딩을 짓고 광교에서 마장동까지 고가도로를 세웠다. 3·1 빌딩과 3·1 고가도로였다. 3·1 은 일제 청산과 근대화를 상징했다. 고가도로는 1969 년 3 월 22 일 개통됐다. 도로를 불신한 미군이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개미마을의 잿빛 영토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철거된 개미마을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

당했다. 세종로와 명동 지하도, 남대문시장 육교, 홍제동 도로 확장 공사는 불도저 취입 첫째 4월 19일 착공해 10월 3일 개천절에 끝났다. 육교는 짓기 쉽다고 광복절에 끝났다. 지하도 6개, 육교 16개와 도로 5개의 건설 공사가 한날한시에 시작됐고 거의 동시에 끝났다. 공사판이 돼버린 서울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김현옥이 말했다. "나는 모른다.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아무도 묻지 않았다. 2년뒤 11월 30일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종 황제 시절인 1899년 5월 17일 처음 종을 울린 지 69년 6개월 13일 만이었다.

■■■ 우리 어머니

먹고살 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아웃소싱, 1960년대 말로는 미화 용역이었다. 구자관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월 6푼짜리 달러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윤보다 이자가 더 많았다. 물건은 팔면 팔수록 손해였다. 몸을 쓰는 청소 일이 오히려 나았다. 만든 걸레는 아버지가 나가서 팔고, 자관은 아줌마들을 고용해 식당 변소와 빌딩 복도를 청소하고 다녔다. 자관은 일하는 곳마다 귀신처럼 찾아오는 빗쟁이들을 피해 다니면서 변기를 닦았다.

자관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수제비를 밥상에 올리곤 했다. 통밀가루로 만들고 멸치 몇 마리로 육수를 낸 멸건 수제비에 건더기도 별로 없었다. 자관은 자기 수제비를 다 건져 먹고 옆에 있는 어머니 수제비도 건져 먹었다. 어머니는 국물로 배를 채웠다. 수제비가 떨어지면 어머니는 별미로 인기였던 라면을 끓였다.

"왜 또 국물을 드세요?" "수프가 닭고기라잖니. 소고기 대신에 이거라도."

무학(無學)이지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운 여자였다. 한자투성이 신문을 읽을 줄 알았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줄 아는 어머니였다. 노름판에서 돌아온 남편 밥그릇에 밥 대신 화투짝을 넣어 투전판 출입을 끊게 만든 지혜로운 아내였다. 투덜대는 아들에게 건더기를 다 주고 짜디짠 국물로 속을 채우는 현명한 어머니였다. 어느 날 철없는 아들이 집에 와 보니 그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고혈압에 반신불수였다.



▲ 고단한 세월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노름을 끊고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은 1970 년 먼저 하늘로 갔다. 어머니는 그해 부엌에서 아들 밥상을 차리다 넘어져 허벅지가 부러졌다. 며칠 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네 공장 아이가 의자를 만들어줘서 변소만큼은 다리 억지로 구부리지 않아도 갈 수 있구나. 고맙다."

어느 비 내리던 밤, 자관은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며 멍하게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다리도 구부리지 못하고 낙숫물 틈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자관은 베개에 머리를 누며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 "제발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1974 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만 평생 드신 분이니 뼈는 오죽 약하며 혈압은 오죽 높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 자관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서 홍수가 난다. 그다음 날부터 자관은 함께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를 여사님이라 불렀다. 아저씨들은 선생님이라 불렀다. 밖에서는 천대받지만 집에 가면 모두가 거룩한 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닌가.

■■■ 1 호선 개통식날 문세광 사건

1968 년 초 북한에서 김신조 부대가 내려왔다. 가을에는 울진에 무장 공비 떼가 침입했다. 이듬해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가 살벌하게 바뀌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시장 김현옥은 서울을 요새(要塞)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북악스카이웨이 건설로 북쪽은 철통같이 막혔다. 서울 국경은 남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청소 일감도 덩달아 늘어갔다.

어머니가 낙상(落傷)하던 그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 무한질주하던 김현옥은 시장에서 물러났다. 시장 집무실 벽에는 술한 준공 테이프를 끊은 가위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김현옥은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다.

1974 년 서울 지하철 1 호선이 개통됐다. 29 주년 광복절이었다. 기념식이 열리던 남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가 재일 교포 문세광의 총에 맞았다. 대통령 박정희는 잠시 중단된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갔다. 며칠 동안 라디오에서는 조곡(弔曲)이 흘렀다.

■■■ 두 번 실패한 자살

구자관은 가정을 꾸렸다. 두 살 어린 박덕희와 결혼해 아들 본훈이와 딸 본아를 낳았다. 미아리 집이 헐리고 가족은 변경을 떠돌았다. 집세를 감당 못하는 가장(家長)을 보고 복덕방 영감님들은 며칠이라도 살라며 빈집을 소개해줬다. 메아리가 울리는 대저택에서 판잣집 단칸방까지 1 년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 아들 본훈이는 미아리 너머 누나 집에 맡겼고 젓먹이 본아는 이모네에 맡겼다. 1979 년 10 월 27 일 아침, 또 한 번 오래도록 조곡이 울려 퍼졌다. 세상이 뒤집혔다. 12 월 12 일과 이듬해 5 월 17 일 연이은 충격에 세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관의 밑바닥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때 많은 청소 업체는 미군 부대에서 업자들이 빼돌린 군용(軍用) 왁스를 사서 청소했다. 세관이 군수품을 빼돌린 업자들을 족쳤다. 자관은 장물아비로

물려 서부역 옆에 있는 서울세관으로 끌려갔다. 사흘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두드려 맞고 벌금 40 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자관은 이를 갈았다. "다 덤벼라. 하나도 안 무섭다." 자관은 왁스 공장을 차리고 바닥 청소용 왁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2 년 6 월 장마가 시작됐다. 자관은 왁스 재료를 끓이고 솔벤트를 부었다. 굵은 날이라 솔벤트 가스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연탄아궁이에 닿은 가스가 폭발했다. 눈을 떠 보니 명동에 있는 백병원 12 층 병실이었다.

손가락과 팔은 달라붙고 온몸이 녹아 있었다. 사흘에 한 번씩 간호사는 자관을 목욕탕에 데려가 수세미로 상처를 박박 밀어 벗겨냈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다. 의사한테 물었다. "퇴원하면 손가락이 퍼지기는 하나요?" "지켜봐야죠."

'병신이 된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침대 아래 물통들이 요란하게 굴렀다. 의사들은 아내 덕희에게 "왜 환자를 팽개치고 나갔느냐"고 화를 냈다. 한 달 뒤 자관은 너털너털해진 육신을 끌고 퇴원했다. 공장은 불타고 빗쟁이들이 휩쓸고 간 사무실은 다 뒤집혀 있었다. 장부를 보니 빚만 8000 만원이 남아 있었다. 거지였다.

"수남아, 보험 좀 들자. 실적 올려줄게." 보험소장을 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이수남은 신이 나서 첫회 차(次)를 자기 돈으로 내줬다. 사망 보험금은 1 억 2500 만원. 자관은 치밀했다.

'빚이 8000 만원, 옷 행상 하는 마누라가 평화시장에 가게를 얻는 데 2000 만원, 서른 평짜리 아파트가 2500 만원. 1 억 2500 만원이면 먹고는 살겠다.'

자관은 유서를 썼다.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십시오. 푸른 초원 위를 달리지는 못해도 걷게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숨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자관은 빨간 포니 픽업을 몰고 장충동으로 갔다. 족발집에서 낫술을 퍼마시고 잠수교로 달려가 교각을 들이받았다. 차는 박살이 났고 자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튕겨져나갔다. 또 죽지 못한 것이다. 자살이 발각되면 보험금이 없다가에 투신하지도 못했다. 미생(未生)? 산 것도 아니었고 죽은 것도 아니었다. 초라한 가장은 차를 폐기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 알루미늄 캔이 가져온 기적

1980 년대 초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초대형 행사를 많이 벌였다. 프로 스포츠가 시작됐고 '국풍(國風) 81'을 시작으로 많은 이벤트가 열렸다. 1983 년 KBS 가 주관한 우주과학 전람회가 열렸다. 자관은 변소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고 전람회 청소 용역에 입찰했다. 신기하게도 용역을 따냈다. 첫날 밤 여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쓰레기를 모아놓으니 고물업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알루미늄 캔을 모아주면 한 개당 10 원씩 쳐주겠다."

훗날 자관이 기적이라 부른 사건이 시작됐다. 유리병 대신에 알루미늄 캔이 막 나온 때였다. 콜라도 사이다도 맥주도 모두 알루미늄 캔에 담겨 나왔고, 박람회 구경꾼들 손에는 누구나 캔 음료가 들려 있었다. 마대 자루에 캔을 모아놓으면 고물업자가 현금을 주고 사갔다. 청소는 적자였다. 강통 팔아 번 돈은 그 몇 십 배였다. 박람회는 두 달 동안 수십만 명이 구경했다. 천변을 헤매던 무학 소년에게 40년 만에 코미디 같은 기적이 벌어졌다. KBS는 이후 구자관에게 용역을 계속 맡겼고 대학교와 기업들이 줄을 섰다.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용역 회사는 자관에게 화상(火傷)을 남기고 매출 5000억원짜리 회사가 되었다. 여사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모시며 이를 악물고 남의 집 청소를 하는 회사 이름은 삼구아이앤씨다.

2015년. 친척 집을 전전했던 아이들은 시집 장가 다 보냈다. 옷가지 행상을 하던 아내는 사모님이 되었다. 자관은 못 배운 게 서러워 예순 넘어 석사까지 땀다. 오십 넘어 스키도 배웠다. 젊은이들처럼 가족점퍼에 쇠사슬 감고 오토바이도 몰아봤다. 다 이루었는데 가끔 눈물이 난다. 젊은 날 그때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의 타는 가슴속을 왜 몰랐을까. 천변에서 고달픈 청년기를 살아낸 일흔한 살 먹은 이 한국인은 지금도 궁금하다.

※ 다음 주 大韓國人주인공은 '늙은 광부의 꿈, 한창석'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